



최초의 유성영화 <재즈 싱어(Jazz Singer, 1927)> 와 할리우드 뮤지컬의 시작

앨 쥘슨(Ali Jolson)의 자서전을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브로드웨이의 윈터가든 극장(Winter Garden Theatre). 앨 쥘슨의 레뷰 (Revue) 공연이 한창 진행 중일 때였다.

앨 쥘슨의 레뷰는 별다른 줄거리가 없는 뮤지컬 공연이었지만 관객들은 대단원이었다. 그런데 공연도중 갑자기 앨 쥘슨이 무대 앞으로 나와 관객들에게 인사를 한 후 자신이 할리우드(Hollywood)로 가야하기 때문에 한 동안 브로드웨이에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물론 관객들은 커다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앨 쥘슨은 자신이 세계 최초의 유성영화(Talking Picture)를 찍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도 그 영화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반신반의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는 몇 달 후에는 반드시 이 자리에 다시 설 것이라는 약속을 하며 관객들에게 노래 한 곡을 선사한다.

마치 할리우드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듯 '캘리포니아 히어 아이 컵(California Here I Come)'을 부른다.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낸다. 자서전의 내용을 자전적 영화 쥘슨 스토리(The Jolson Story, 1946)에서 이야기로 꾸민 것인데 관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는 마치 세계 최초의 유성

영화이며 최초의 뮤지컬 영화에 대한 찬사를 표현한 듯한 박수소리였다.

더욱이 앨 쥘슨의 <재즈 싱어(Jazz Singer)>는 앨 쥘슨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말하기 일보직적이었던 영화사 '워너브라더스(Warner Bros.)'를 세계최고 영화사 중 하나로 21세기까지 지속시킬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작품이었다. <재즈 싱어(Jazz Singer)>의 성공과 함께 무성영화는 급속도로 사장(死藏)되어 갔고 전 세계 영화 시장에 유성영화의 자리가 잡히게 되었다.

이런 영화사의 흐름을 잘 표현한 것이 영화 <싱잉 인 더 레인(Singing in the Rain, 1952)>이다. 우리에게 <사람은 비를 타고>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가는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고 <재즈 싱어(Jazz Singer)>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그렇지만 <재즈 싱어(Jazz Singer)>는 본격적인 유성영화는 아니었다. 유성과 무성이 혼합된 영화로 단지 노래 부르는 장면만이 유성(Talkie)으로 처리되었다.

비록 반복 짜리 유성영화이긴 했지만 관객들은 신기한 발명품에 놀라면서 신문지상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앨 쥘슨의 모습을 영화에서 직접보고 그의 노래를

들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열광했다.

그런데 앨 쥘슨이 이 영화 속 주인공의 첫 번째 선택은 아니었다. 유성이란 실험적인 영화로 인해 혹시 자신의 명성에 흠집날 것을 두려워한 에디 칸터(Eddie Cantor)가 거절하자 워너브라더스사는 출연료를 더 주더라도 브로드웨이에서 활신 지명도가 높은 앨 쥘슨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앨 쥘슨의 출연료는 75000달러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날에는 일반화되어 있지만 흥행실적이 따라 돈을 더 받게 되는 일명 러닝 개런티를 계약조건에 포함시켰다.

앨 쥘슨의 러닝 개런티를 포함한 출연계약 액수는 1927년 당시 상상을 초월한 거액이었지만 <재즈 싱어(Jazz Singer)>의 엄청난 성공으로 인해 워너브라더스 영화사도 350만 달러라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재즈 싱어(Jazz Singer)>의 대 성공이후 많은 영화사에서 경쟁하듯 앞을 다투어 뮤지컬 영화를 만들어냈는데 본격적인 뮤지컬 영화는 MGM 영화사에 의해 1929년에 만들어졌다. (브로드웨이 멜로디(The Broadway Melody)가 최초의 본격적인 뮤지컬 영화로 기록되고 있는데 "모두가 말하고 노래하고 춤을 춘다."(all-talking, all-singing, all-dancing)는 표어처럼

기술적으로나 작품성 면에서도 획기적인 뮤지컬 영화로 평가되고 있다.

<재즈 싱어(Jazz Singer)>는 국내에도 DVD로 출시되어 있는데 첫 토기 영화를 보는 재미와 함께 전성기의 앨 쥘슨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마치 앨 쥘슨의 자서전을 옮겨 놓은 듯이 보이는 일부 장면들은 앨 쥘슨 생애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로 기억되고 있는 사건들이다.

마음은 보드빌에 가 있지만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성가대에 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과 꿈을 위해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떠나려는 장면, 그리고 비록 영화에서는 어머니가 보드빌 배우로 성공할 때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 더욱 그리움이 커져만 가는 장면들은 거의 실제와 유사하다. 임종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성가대에 서 부르는 '콜 니드라이(Kol Nidrei)'와 민스트럴 쇼(Minstrel Show)처럼 흑인 분장을 하고 부르는 '매미(Mammy)'는 이 뮤지컬의 백미이다.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韓國의 선비정신 · 68

삼학사의 한사람 '윤집 (尹集)'

스스로 머리를 이고 왔으니 어서 내 머리를 끊거라



리효중 포천한사사 대표

병자호란때, 청나라 군사는 남한산성을 포위한 후 임금이 직접 성에서 나와 항복하고, 항전을 주장하던 대신들을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최명길은 이미 청나라 진영에 잡혀 있는 홍익한 외에 척화(斥和)를 주장하던 대신들의 명단을 작성한 후, 혹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 자살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신들이 두렵고 위축되어 감히 말하는 이가 없었다.

그때 윤집이 웃으며 말하였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다. 대장부로서 어찌 이름을 숨기랴." 그는 줄곧 항전을 주장해오던 오달제와 함께 청나라의 요구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는 다른 대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윽고 윤집과 오달제가 청나라 진영으로 가기 위해 임금에게 하직인사를 올렸다. 임금은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뜻나간 임금을 임금으로 섬긴 죄 때문에 남한산성에 들어왔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소. 장차 내 마음을 어떻게 진정하라. 그대들에게 부모와 처자들은 있는가?"

윤집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신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모두 남양(南陽)으로 갔습니다. 남양부사가 청나라 군사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세 아들의 생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아, 참혹하고 가련한 일이로다. 그대들이 이곳을 떠나고 내린 장차 과인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행여 과인이 살아 아남는다면 그대들의 늙은 부모와 처자들을 마땅히 잘 돌보아 주라!"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올리자 인조는 잠시 두 사람을 불러두었고 내관으로 하여금 술을 대접하도록 했다. 그때 바깥 동정을 살피고 있던 승지가 들어와 인조에게 아뢰었다.

"청나라 사신이 벌써 문 앞에 와서 재촉하고 있습니다." 인조가 서둘러 두 사람에게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어찌 이렇듯 황망하게 독촉하

느냐? 하늘도 무심하구나!" 임금은 울면서 두 사람의 소매를 붙들었다.

"부디 살아 돌아오시오!" 이윽고 두 사람은 인조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다.

"신이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니 조공도 한이 될 게 없습니다." 두 사람이 물러가자 인조는 문을 닫고 퐁곡하였다.

윤집과 오달제는 적진에 도착하여 곧 청나라로 압송되었다. 청나라에 도착하자 적장이 물었다.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한 사람이 너희만은 아닐 것이다. 다른 대신들의 이름을 대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윤집이 얼굴에 웃음을 띠고 적장에게 말했다.

"사내 대장부에게는 오직 한번의 죽음이 있을 뿐이오. 어찌 죽음이 두려워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끌어들이 죽음을 면하겠소? 처음 성을 나설 때 나는 이미 죽음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고, 죽을 자리를 찾았으니 두려울 바 없는 일이지만, 행여 과인이 살아 아남는다면 그대들의 늙은 부모와 처자들을 마땅히 잘 돌보아 주라!"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올리자 인조는 잠시 두 사람을 불러두었고 내관으로 하여금 술을 대접하도록 했다. 그때 바깥 동정을 살피고 있던 승지가 들어와 인조에게 아뢰었다.

"청나라 사신이 벌써 문 앞에 와서 재촉하고 있습니다."

인조가 서둘러 두 사람에게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어찌 이렇듯 황망하게 독촉하

윤집과 오달제는 다시 감옥 안으로 향했다. 그때 윤집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데리고 온 종에게 말했다.

"오늘 오랑캐들이 반드시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종이 울면서 말했다.

"어째서 저들의 말을 따르지 않아 스스로 화를 재촉하십니까?"

"차라리 죽을지언정 몸을 굽히는 욕을 당할 수는 없다."

감옥 안에서 윤집과 오달제는 태연자약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식사도 여느 때처럼 잘하였다.

이윽고 두 사람은 인질로 잡혀 있다가 심양에서 숨을 거두었다.

윤집 (尹集)

1606년(선조39)~1637년(인조15).

본관은 남원(南原)이며 자는 성백(成伯), 호는 임계(林溪) 또는 고산(高山)이다. 1627년(인조5) 생원이 되고, 1631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관직에 나

갔다. 1636년 교리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이때 오달제 등과 함께 화친의 사신을 보내자고 주장하는 최명길의 목을 벨 것을 청하면서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나라와 화의가 성립되자 오달제와 함께 청나라로 끌려갔다. 청나라에서 고문과 회유 등으로 그의 뜻을 돌리려 하였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심양성 서문 밖으로 끌려가 처형되었다. 시호는 충성(忠貞)이다.

삼학사(三學士)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의 화의를 반대하고 끝까지 항전을 주장한 홍익한(洪翼漢), 윤집(尹集), 오달제(吳達濟) 등을 말한다. 1636년(인조 14) 12월 청 태종(淸太宗)이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조선에 침입하여 남한산성을 포위했을 때, 조정의 의견은 엇갈렸다. 그때 최명길 등은 청나라와 화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삼학사는 결사항전을 주장하였다. 1637년(인조 15) 1월 남한산성이 함락되자 세 사람은 척화신(斥和臣)으로 지목되어 심양(瀋陽)에 잡혀가 참형되었다.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02)

「장례(葬禮)」이야기 (2)

요즘 「전국토의 묘지화」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러나 땅에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묻었다고 하여 영원히 보존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필자가 사는 서울의 번두리 수락산이나 도봉산에 가면 차관급 이상의 고급 관리들이 묘소나 유명인사(장군·순국영인)들의 묘소가 잘 보존된 곳도 있지만 옛날 왕족이나 왕의 외척들의 호화분묘가 흉측하게 파손 되어 크고 작은 석물(石物) : 상돌, 비석, 망두석, 지석, 문무백관석)들이 나뒹구는 모습을 보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다시 말해서 옛날 왕족이나 귀족들의 세도가 하늘을 찌를 듯

할 때에는 묘소의 주인들이 돌보지 않았어도 서울 외곽의 고양, 양주 목사들이 국립묘지 돌보듯 돌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후손들의 영화나 잘 되고 훌륭하여 조상의 묘소를 지극 정성으로 모시기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은 것이다. 나무로 만든 예쁜 죽은 집의 집을 만들어 영혼이 사는 대만의 무덤이나 남떨어지기에 매달리듯 지어지는 멕시코의 무덤, 웅덩이 위에 띄워지는 베트남의 작은 영혼의 집, 마을 한 가운데 비석 밑에 묻혀지는 미·영국의 무덤, 교회 지하 영혼의 집에 묻혀지는 유럽의 무덤 등이 장례의 종류를 말한다.

새가 되라고 나무 위에 시신을

올려놓는 장례 풍습이 있는가 하면 회백돌 화한 화다짐의 분묘 방식은 우리 한반도의 분묘 방식이다.

고려 말 충신이자 드문드문 72인의 한 분이며 효자였던 삼촌공 김자수(梁村公 金自粹)님은 자결하여 충신불사군(忠臣不事二君)의 선비정신을 구현하고 이성계에게 역신삼족멸화(三族滅禍)를 면했다. 아들에게 명하기를 '나 죽거든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하였다. 그 후, 나라에서 석물을 세웠으나 후손들이 땅에 묻었다. 요즘은 다시 석물을 세우다니 불효지사(不孝之事)라 하니 할 수 없다.

국립현충원이 아니고서야 어찌 영원히 묘소가 보존 될 수 있겠

는가?

요즘을 남북교류가 윤행하고 수목장지가 높은 값에 팔린다는 소문이다. 돌로 만든 납골묘가 훼손될지 없었지만 어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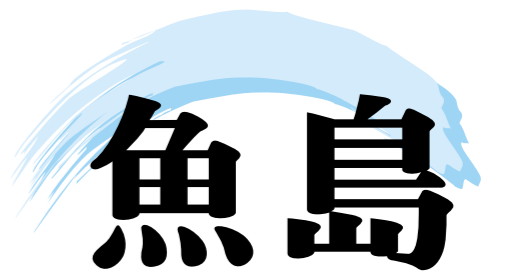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육사)」를 내려다보는 육사 출신 「맥아더」원수나 「아이젠 하워」원수도 토장묘이다.

나라에서 영혼을 영원히 추앙하는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이 되지 못할 바에는 조용히 고향 마을 뒷산에 옛날 노닐던 고향 내려다 보며 잠드는 것이 최고의 행복한 죽음이다. (땅으로 돌아가) 수목장은 살아서 오래 산다는 잣나무를 심어 키우다가 심은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여 유골 상자에 담아 나무 밑에 묻는 장례 방식이다. 여하튼 죽음은 죽은 사람의 유언대로 분수에 맞게 하는 수분지장(守分之葬)을 최고의 장례라고 옛 포천의 조상들은 주장해 왔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Japanese Restaurant

정갈한 음식 · 깔끔한 분위기 일식요리



어도 특선 메뉴

- 생대구탕
- 생선구이 정식
- 복지리
- 알탕
- 갈치조림
- 물곰치탕

여름철 특선 메뉴

- 복지리 샤브샤브
- 모밀 · 소바
- 전복해물 삼계탕
- 산낙지 회덮밥

예약문의 : 031-541-5577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05-17(삼성홈플러스 맞은편) 대표이사:이 안 임